

서울시 결핵관리현황

김 용 세

서울시 의약과 보건사무관



1. 서언

지난 '97년 10월 21일 서울시와 대한 결핵협회 서울지부 공동 주관으로 '97 서울시의 결핵관리 사업 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평가회는 본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결핵관리 사업을 분석해보고, 그 문제점을 찾아 앞으로 서울시의 결핵관리사업

의 방향을 설정해보자는 취지였다.

이 평가회의에서 결핵연구원 류우진 역학부장의 <한국의 결핵현황과 전망> 주제발표는 내용 전부와 사례별 모두가 결핵을 관리하는 귀한 자료요, 깊이 음미할 욕고였다.

그 중에서도 전국 보건소에서 등록하고 있는 도말양성 신환자 중 20~30대의 젊은 연령층과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신환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전형적인 후진국형의 신환발생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적잖이 당황한 바 있다. (서울시의 신환발생률은 거의 같은 수준임)

그러나 일선에서 결핵실무를 하고 있는 결핵요원들의 사례발표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결핵에 대한 관심과 열정들이 이내 따뜻한 격려가 되어 힘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았으나 그날의 평가회는 매우 소중한 기회였음을 지금도 믿고 있다.

2. 결핵관리 현황

결핵관리란 국가보건사업내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결핵으로 야기된 고통을 경감시키고 결국에는 결핵을 근절시키려는 접근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핵의 역학적 상황 및 요구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용기술 및 보건자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된 활동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별로 지역사회의 BCG예방접종 및 결핵환자 발견사업과 등록치료 그리고 환자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일차적인 환자교육과 추구관리에 주로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결핵을 담당하는 관리의사가 관할보건소를 순회하면서 등록, 치료효율 평가와 등록된 환자의 적절한 치료처방을 정하고 치료경과를 관

찰하며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결핵 담당 간호사는 약품배정, 등록된 환자들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보내고 있다.

결핵균 검사체계를 보면 도말검사는 환자발견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보건소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배양검사는 중앙단위(결핵연구원검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핵예방사업을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3. 결핵예방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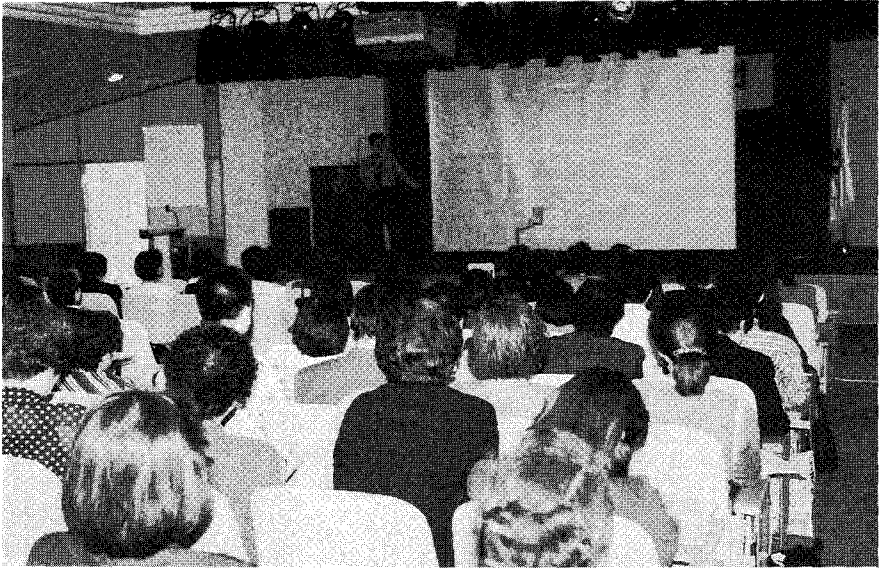
가. BCG예방사업

BCG예방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핵관리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이다.

BCG의 안정성, 접종시기, 방법 및 기술, 접종방법의 정상적 경과, 부작용, 합병증, 금기사항, 접종효과등 BCG 예방접종사업 추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 및 일반의료기관(병, 의원)에서의 신생아 및 영유아의 BCG 접종은 비교적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나, 초등1년생에 대한 접종은 부진한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97년 BCG 접종실적을 보면 총 149,000명 접종 목표에 130,



서울시와 대한결핵협회 서울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결핵관리 사업 평가회의에서 <한국의 결핵현황과 전망>이라는 내용으로 결핵연구원 류우진 역학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629명을 집중하여 87.7%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초등 1년생 19,000명 목표에 15,203명을 집중하여(80.0%) 전체에 못 미치고 있다.('97. 12. 31 현재).

향후 학교, 학부모의 긴밀한 협의하에 학교예방접종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이 요구된다.

나. 환자발견 및 등록

환자발견의 목적은 결핵으로 인한 사망 및 고통을 최소화하고 결핵문제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환자발견 사업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누가 전염원이고 어디에서 그들을 발견할 것인가'와 '최소한의 비용으로 비교적 빨리 보다 많은 환자를 발견할 수 있는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자발견사업

- (1) 보건소 내소자 중 유증상자에 대한 객담검사
- (2) 보건소 내소자에 대한 무료 엑스선 검사
- (3)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 수첩(보건증)시 결핵 유소견자
- (4)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주민 대상 엑스선 이동검진사업을 들 수 있다.

〈서울시 결핵환자 등록 관리 현황〉

(1997. 12. 31현재)

총 계	보 건 소					병의원
	소계	양성	음성	요관찰	기타	
17,772	9,379	1,566	1,481	6,257	85	8,383

'97년 서울시의 환자발견사업은 총 11,980명 목표에 11,767명을 발견하여 98.2%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균양성 82.7%, 균음성 69.8%에 요관찰이 136.2%로 요관찰을 제외한 질적인 환자발견사업 노력이 필요하다.

다. 등록치료

객담검사 결과 양성환자로 판명되거나 음성인자로서 엑스선상 유소견자는 보건소에 등록 추구 치료를 하고 있다.

등록대장 등재 및 환자기록표를 작성하고 특히 등록 당시 과거력 조사등을 세밀히 기록하여 향후치료에 참고하고 있다.

'97 서울시 환자 발견 및 등록 현황을 보면 환자발견 11,767명 중 11,229명을 등록하여 95.4%에 이르고 있다. 특히 요관찰을 제외한 균양성, 음성자 5,531명을 등록하여 (90.6%)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4. 맺음말

이상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핵

■
**향후 결핵관리체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결핵관리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관리 실태를 알아 보았다.

그러나 서울시의 결핵관리 체계는 민간 의료부분이 제외되어 결핵의 통일된 진단기준 및 치료처방에 대해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일부 민간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신환발생률을 알 수 없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향후 결핵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결핵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